

부산, 동남권 임상시험 메카로

동남권이 임상시험의 메카로 육성된다.

부산시는 임상시험이 세계 의료산업의 핵심 부가가치산업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11월 동남권 임상시험협의체를 중심으로 <동남권 임상시험 육성센터>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10월19일 발표했다.

동남권 임상시험협의체는 부산지역 13개, 울산지역 6개, 경남지역 2개 등 21개 지역의 임상시험 관련기관들이 참여한다.

부산시는 2012년부터 국가공모사업에 공동 참여하며 2014년 아시아 선도 임상협의체를 구축하고, 자체 수익 모델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.

<화학저널 2011/10/20>